

계 열 문 항 1

<가>

“만약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겠죠. 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제가 그 말들 중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이 될 수만 있다면 졸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왕이 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요.”

이 말을 하고 앨리스는 조금 부끄러워져서 진짜 여왕을 살짝 쳐다보았다. 그러나 여왕은 유쾌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쉽지. 내가 좋다면 하얀 여왕의 졸이 될 수가 있단다. 하얀 여왕의 아기 고양이는 시합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든. 둘째 칸에서부터 시작하렴. 여덟째 칸에 도착하면 너도 여왕이 될 수가 있단다.”

바로 그 순간, 웬일인지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몇 번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달리기 시작했는지 앨리스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그들이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고, 여왕이 너무나 빨라서 간신히 속도를 맞추기에 바빴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여왕은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빨리!”라고 소리쳤다. 앨리스는 더 빨리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할 틈조차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들 주변에 있는 나무며 다른 것들의 위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어느 것 하나 뒤로 젖히고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중략)...

이제 그들은 너무나 빨리 달려서 마침내 땅에 발을 대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앨리스가 완전히 지친 순간, 갑자기 그들은 멈추었다. 앨리스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차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여왕은 앨리스를 나무에 기대어 서게 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쉬도록 하렴.”

앨리스는 깜짝 놀라 당혹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나, 우리가 계속 이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은 자리예요!”

“당연하고 말고, 어떨 거라고 생각했지?”

여왕이 물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참 동안 빨리 달리면 어딘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조금 숨을 헐떡이며 앨리스가 말했다.

“느림보 나라 같으니! 자,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단다. 어딘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최소한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만 해!”

여왕이 말했다.

- 루이스 캐럴, 《거울 나라의 앨리스》

<나>

현대인들은 자신에게서 시간이 빠져나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는다. 시간은 마치 석유처럼 소비되는, 그래서 점점 더 희소하고 비싸지는 원자재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역설이다. 이러한 시간 부족의 느낌은 최근 수십 년간 강해졌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멀티태스킹처럼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사회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간은 증가해야 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덜 들게 되므로 시간은 풍부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간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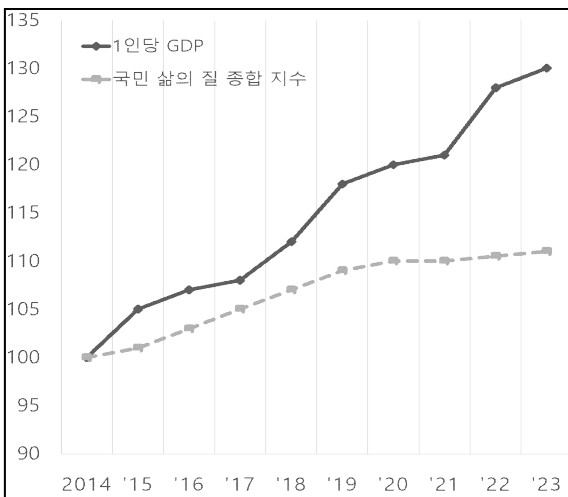
이메일을 한 통 쓰는 것이 종이 편지를 한 통 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빠르다고 해 보자. 1990년에 평일 기준 하루에 편지를 열 통 쓰고 받았고 이를 위해 총 두 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서신 교환에 매일 한 시간만 필요하다. 보내고 받는 메시지 양이 동일하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자유 시간’이 한 시간 생겨나서 다른 일에 쓸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읽고 보내는 메시지가 두 배로 많아진다면 매일 서신 교환에 드는 시간은 이전과 똑같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처럼 출생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고 생애 동안 안정적인지 않으며, 지속적인 경쟁에 의한 협상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런데 경쟁에서 승패를 결정하고 차별화하는 원칙은 결국 성과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가속과 시간 절감은 경쟁 우위를 얻게 해 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경쟁의 사회적 논리에 따르면, 경쟁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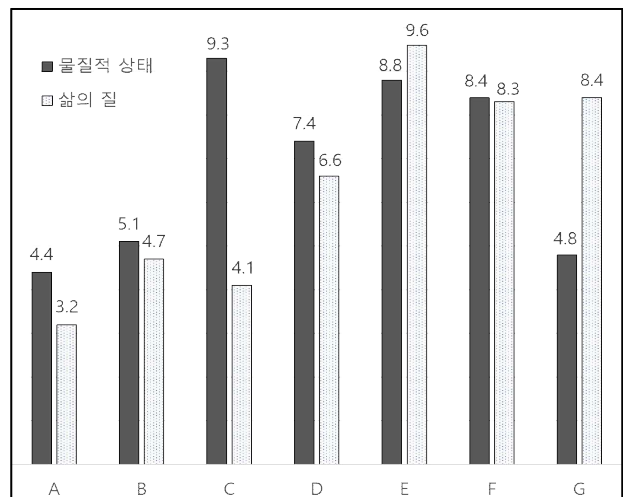
<다>

현대의 효율 개념은 19세기 새로운 과학 분야인 열역학의 실험 과정에서 나타났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실험하고 있었던 엔지니어는 열의 유량과 엔트로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효율(efficienc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효율은 에너지와 노동 및 자본을 최소로 소비하여 최단 시일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을 뜻하게 되었다. 기술유평아주의자들은 좀 더 효율적인 기계와 효율적인 시간의 이용이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자유 시간을 주어 사람들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리라 믿었다.

경제적 과정에서 효율이라는 관념을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은 테일러였다. 테일러는 초시계를 이용하여 개별 노동자의 과업을 가장 작은 유형의 확인 가능한 작업 요소로 나누고 그 각각을 측정했다. 이는 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 직무의 개별 구성 요소에서 소요된 평균 시간과 최적 시간을 계산한 테일러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소한 성과마저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에 관해 권고할 수 있었다. 효율의 열풍은 세상을 휩쓸었다. 많은 이가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은 줄어들고 더 많은 부와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효율 사회는 전국의 사무실과 공장, 학교와 시민 단체에서 확립되었다.



[그림 1] A국 1인당 GDP 및 국민 삶의 질 추이 (2014년을 100으로 보고 산출)



[그림 2] 2023년 7개국의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비교 (물질적 상태와 삶의 질 모두 10점 만점 기준)

1-1. <가>의 엘리스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을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효율 사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그림 1], [그림 2],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나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와 다른 배경을 지닌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열서너 살 무렵, 나는 같은 반 친구 한 명과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는 당시 우리 도시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에서 근무하던 교수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엔가 음악 선생이 우리에게 연주곡을 들려주고는 무슨 곡인지 맞춰 보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번쩍 들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에서의 하룻밤>이요!”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어안이 병병해졌다. 나에게 그 수업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내 가족들에게 이런 부류의 음악은 참을 수 없었고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걸 “잘난 척하는 음악”이라고 불렀다. 어쩌다가 그런 음악이 나오는 방송이 라디오에 잡히면 우리 가족은 서둘러 끄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미사에 온 것은 아니잖아.”

파리에서 공부 중인 형과 누나가 있었던 그는 작가나 영화감독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이었다. 그는 내게 고다르의 영화나 베케트의 연극에 관해 이야기했고, 나는 나 자신이 매우 무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특히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를 매료시켰고, 나는 그를 닮고자 열망했다. 그리고 나 역시 고다르와 베케트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고다르 영화나 베케트 연극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속임수 쓰는 법을 배웠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지식을 내 것인 양 주장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전력을 다해 나 자신에게 만들어 주고자 한 외양과 이미지뿐이었다.

그는 잭 케루악*을 숭배했고, 기타 연주를 즐겼으며, 히피 문화에 동질감을 느꼈다. 문화는 줄곧 그의 세계였다. 그와 달리 나는 68년 5월 혁명**과 정치적 저항의 영향을 받았다. 나는 학교 문화와 그것이 요구하는 훈육에 저항했다. 나는 소란스러웠고, 순종적이지 않았다. 자칫했다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학교 교육을 완전히 거부하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열등한 나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잔인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교분을 나누는 사람에게, 마치 그 역시 예전부터 자신과 동일한 실존적·문화적 경험을 해 왔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전제함으로써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우정도 역사라는 중력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존을 시도하는 두 개의 체화된 사회적 역사였다.

* 잭 케루악(1922~1969):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 68년 5월 혁명: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이자 총파업 투쟁.

<나>

사람들은 누구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여긴다. 즉 나이와 신분을 떠나서 똑같이 미적 쾌락을 느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통감각’이다. 공통감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 안에 본래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이에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림이나 자연 풍광을 보면서 느끼는 감성은 계급적으로 차이가 난다. 계급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미적 취향이 학교나 가정에서 익힌 훈련에 따라서 다르게 길들여진다는 점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러한 미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옳음/그름’의 형식으로 작용하도록 강제력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디외는 미학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는다. 미술 작품이나 음악에 대한 취향은 현실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술에 대한 순수주의를 강조하는 미적 성향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부르주아적 계급 기반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것은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성향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예술과 윤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미적 취향이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며 이것이 다시 ‘고급 취향/대중 취향’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미적-윤리적 관계가 ‘지배자/피지배자’의 역학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

름다운 것/추한 것', '탁월한 것/천박한 것'의 구별은 사회적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객관적 분류 체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높음/낮음'의 형식으로 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문화 활동이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이러한 과정에는 교육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예술 작품을 보고 첫눈에 반하거나 순식간에 희열을 느낄 수는 없다.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는 감정적 융합, 인지 행위, 해독 작업을 거치기 마련이다. 즉 작품의 내재적 논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사물을 지각하고 음미하는 도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독 능력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다.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은 바로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의 정도가 예술에 대한 '고급 취향/대중 취향'을 구별하는 계기가 되며, 거꾸로 예술에 대한 취향이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취향은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음식에 대한 기호, 가구 취향, 패션 감각 등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실천이 사실은 취향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쾌락과 감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감성의 형성은 사회적 분류 체계로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다>

예술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매튜 아놀드는 순수예술을 인류의 주요한 정신적 성취로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무정부 상태의 대중'을 '천박한 본성'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예술 교육은 특정 기예를 특정 전문가 집단에게 숙련시키는 예술가 교육 이상이었다. 예술 교육은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신적 모델을 제시하여 대중들을 계도하는 '시민 교육'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보스턴의 엘리트들은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비영리 예술 단체를 설립하여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구별하고 전자의 우월성을 제도화시켜 나갔다. 이때 고급 예술의 대중 문화에 대한 상징적 우위는 전자가 후자의 문제를 교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정명(定命)을 포함했다.

역사적으로 예술을 통한 시민 교육 기획의 근저에는 예술을 문화의 정수로 파악하는 엘리트적 인식이 깔려 있다. 엘리트가 선도하는 예술 교육 정책은, 고급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문화 민주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전후 서구의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진행된 문화 민주화 정책은 아놀드의 예술교육론에 그 뿌리를 두었다. 문화 민주화 정책은 예술을 통해 대중의 저급 문화를 교화하고자 했으며 도시 공동체에서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도하고자 했다. 그런데 좋은 취향으로 나쁜 취향을 대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엘리트적 유산에 속한 문화가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드러내었고, 문화와 창의성이 일부 전문적인 예술가들에게만 속한다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2-1. <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에 제시된 '문화 민주화' 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나>를 바탕으로 비판하시오. (600±60자)